서울 전시 마친 지장보살 '제자리로'

선운사, 지장보살 환안재
영산전 보물지정서 전달도
"지장보살 원력, 도량 수호"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는 8월 6일 '지장보금 금동지장보살좌상 환안재'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8월 6일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환안재'와 '고창 선운사 영산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 전시를 원만히 마치고 본래 자리인 선운사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금동지장보살좌상의 환안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 지정된 영산전의 역사적 가치를 사부대중과 공유했다. 행사에는 부주지 운천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은행나무 숲에서 대종 10타를 시작으로 진행된 환안재는 전북 무형문화유산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지장보살 이운행렬은 인로왕보살 번을 비롯한 각종 번을 앞세우고 극락교, 사천왕문, 만세루를 거쳐 대웅보전 앞에서 영축게와 3배를 올린 뒤 지장보궁에 도착했다. 이어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지장보궁에 봉안됐다.

부주지 운천 스님은 "지장보살님의 대자대비 원력이 항상 이 도량을 수호해 불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선운사의 가람이 영구히 창성하길 발원한다"며 "환안 봉안 불사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과 시주 공덕주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현생에는 길상과 안락을 얻어 국태민안과 중생 구제의 길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영산전 법당에서 보물 지정서 전달식이 봉행됐다. 이날 선운사는 영산전의 보물 지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군 김진 문화예술과 전문위원과 김숙희 학예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선운사는 "수백 년 세월 동안 영산전을 정성으로 수호해 오신 역대 조사 스님들과 사중 스님,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물 지정은 이 소중한 성보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의무가 부여됐음을 의미하는 만큼, 영산전의 원형을 보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영산전의 보물 지정으로 고창 선운사는 9점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한 불교문화유산의 보고가 됐다"며 "선운사가 간직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은 "지장보살님이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오시고 영산전이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날을 맞아 신도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선운사는 고창군종합복지관에 자비의 쌀 1500kg을 전달했으며 선운사 신도회는 고창군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담양 전승 불복장 의식, 무형유산 가치 조명

8월 8일, 용화사서 학술세미나
독자 작법 · 전승脈 학술 규명
"지역 무형유산 지정 기반 마련"



담양 용화사는 8월 8일 '전남 전통 불복장작법 및 점안의식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전통의례인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 가운데 전남 담양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독자적인 작법과 전승 계보를 규명하고 지역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의식 보존회(회장 수진 스님·용화사 주지)는 8월 8일 담양 용화사 대웅전에서 '전남 전통 불복장작법 및 점안의식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전승되고 있는 불복장작법과 구별되는 용화사 주지 도월 수진 스님의 전승 계보와 독자적인 작법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지역 무형유산 지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은 불상과 불화가 성보로 예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한국불교의 소중한 전통의례"라며 "담양은 1757년 추월산 용천사에서 〈조상경〉이 처음 간행된 이후 불복장작법과 점안의식이 전승돼 온 불교문화의 요람"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발표에서는 이중표 전남대 불교철학 명예교수가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을 주제로 불복장작법의 사상적 의미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붓다 열반 이후 불탑이 주요 숭배 대상이 됐으며, 성수·윤보·불족·불좌 등을 통해 붓다와 가르침을 상징하다 이후 불상이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불교 불복장 법식화와 그 특징-율사 수진의 작법을 중심으로'를 통해 호남지역 불복장작법의 전승 계보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 연담 유일 선사에서 화담 법린, 금해 관영, 묵담 성우를 거쳐 도월 수진 스님으로 이어지는 전승 법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진 스님의 법식이 역사적 전승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의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도월 수진의 불복장 법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통"이라고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김종용 동국대 불교무형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등 대종사 인재불사 원력 잇다

8월 9일, 군위 제2석굴암서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



혜조당 법등 대종사가 평생 일궈온 인재불사의 원력이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위 제2석굴암(주지 홍관 스님)은 8월 9일 비로전에서 혜조당 법등 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 다례재 및 연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등장학회 장학금은 승가부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모두 32명에게 총 2100만원이 전달됐다. 승가부에서는 원경·탄경·선고·형조·지안·선림·범종 스님 등 7명이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일반 대학생으로는 단국대 소예준, 서울과학기술대 조영웅, 부경대 박준호 학생이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효령분교와 부계중학교 학생 5명에게 각각 50만원이 전달됐다. 능인고 학생 17명에게도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연등장학회는 법등 대종사의 인재불사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법등 대종사는 팔공산 석굴암을 일구는 한편 후학 양성과 교육불사를 위해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그 뜻을 이은 연등장학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7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장학금은 5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학생들은 물론 스님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불교와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도대표이자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은 "큰스님께서 남기신 뜻을 잘 받들어 매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해 사회와 국가에 더 큰 뜻으로 보답하고,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추모 다례재에서는 법등 대종사가 평생 실천해 온 수행과 포교, 인재불사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연꽃, 봉선사를 물들이다

제24회 행복바라미 연꽃축제
8월 8일 연꽃음악회 진행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음악과 연꽃이 어우러진 연꽃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히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 제24회 연꽃축제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다.

봉선사는 8월 8일 경내 연지 상설무대에서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라미 연꽃축제' 개막 기념 '연꽃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대 연꽃이 되소서, 제가 진흙이 되겠나이다'를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음악과 연꽃이 어우러진 쉼을 전하고 청정·자비·화합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 행사에서는 연지 주변에서 신행·복지 홍보부스와 청년창업·지역경제 관련 나눔부스 16개가 운영됐다.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 등으로 지친 우리 사회에 잠시 멈춰 쉬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연꽃과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보광사 주지 선우 스님은 식전 공연과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에 전법활동지원금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과 인묵 스님은 광동고·의정부광동고·광동중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음악회 무대에서는 광동고 칠정례단의 우리말 칠정례와 연꽃미소합창단·수미산합창단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정서주·김주이·김금미·길대호·이하윤, JH콰이어, 코리아 유쓰 브레이커즈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와 합창, 비보이 공연, 원낭만기타, 색소폰 연주로 꾸민 행복바라미 버스킹 공연 등을 선보였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별빛·여름밤·모기장이 만났다

화엄사 모기장음악회 성료



지리산의 별빛과 바람을 벗 삼아 모기장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화엄사만의 특별한 여름 문화축제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8일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2026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음악회에는 가족과 연인, 학생,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영상 인사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공연은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메인 MC를 맡았으며 리사, 김신의, 백주연, 최지이 등이 무대에 올랐다. 김주연 음악감독이 이끈 100분간의 공연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출연진 개별 무대와 듀엣·합동 무대, 디즈니 스페셜, 피날레 합창 등 뮤지컬 갈라 형식으로 펼쳐졌다.

특히 올해 음악회는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형 입장료'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화엄사는 참가자들이 낸 1만원의 입장료를 모아 행복나눔기금 500만원을 조성해 한국농아인협회 구례군지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례군지회에 각각 250만원씩 전달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김경숙 씨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낸 돈이 뜻깊은 곳에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보람 있었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곡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최

8월 7~9일, 어린이 30명 참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마련했다.

마곡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 마곡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7일 열린 입재식에서 마곡사 교무국장 용담 스님은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바른 마음과 행동을 하나씩 배워보길 바란다"며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내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들은 조를 편성하고 경내와 박물관을 둘러본 뒤 타종과 저녁예불, 108배 염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김영택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동부총괄팀 포교사의 해설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인연이 깃든 삭발바위와 마곡사 성보박물관을 둘러보며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배웠다.

이밖에도 피자 만들기와 물놀이, 싱잉볼 체험,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단법인 붓다, 아이스크림 3000개 전달

8월 10일 전주교도소에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는 8월 10일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아이스크림 3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수용자들이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북지역 불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무더위를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량사, '문화유산과 기후인문학' 특강

8월 11일, 국가유산 활용사업 일환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11일 경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천년의 향기, 문화유산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를 주제로 '역사문화유산과 기후인문학'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강연에는 서정선 더페스티벌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연에 앞서 정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올곧게 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문화유산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서 대표는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무량사 오층석탑을 비롯해 외부에 노출된 석조문화유산의 보존 문제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